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이정노*

1. 서론

필자가 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에는 겨우 고 Lukoff 선생의 *Spoken Korean*밖에 없을 정도였는데, 요즈음 이십여 종의 교재가 국내외에서 만들어졌고 또 정부 차원에서까지 교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런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1990년을 전후하여 국내외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의 교재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더욱 고무적이다(황인교, 1998).

미국에서는 “완벽한 교과서는 없다”라는 말을 흔히 듣는데 이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맞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필자도 초보자용의 교재를 한번 개발해 본 적이 있는데 language textbook을, 그것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교수법이나 제2언어 습득에 대한 이론과 지식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교수하면서 얻는

*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여러 가지 문제점(pitfalls)의 인식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교과서나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Like other Korean language textbooks on the market, this textbook has its strengths and weaknesses”(King and Yeon, 2000)라는 말은 참으로 요점을 찌르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이 여러 해 동안 공을 들여 개발한 교재를 불과 몇 시간에 걸쳐 평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어 교수에 대한 교재는 원칙적으로 세상에 내놓기 전에 field test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의 면밀한 review도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다양한 교재가 많이 개발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2외국어 습득의 이론적·교육적(pedagogical)·조직적인 면, 목표 언어의 학습자 문화 배경, 담화의 진정성/자연성 등 논의할 문제 역시 많이 생기게 된다. 백봉자(1999), 라혜민·우인혜(1999), 황인교(1998) 등의 연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존의 비생산적인 접근과 필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생산적 접근을 실례를 들어서 명확히 비교하고 논의하는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최근의 조사(이효상)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하와이 대학에서 출간한 KLEAR(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의 *Integrated Korean*이고, 이외에 연세대학교 교재, 고려대학교 교재, Berkeley 대학 교재 등을 쓰는 소수의 대학들이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주로 *Integrated Korean*과 고려대학교의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금년에 출간된 King and Yeon의 *Elementary Korean*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¹⁾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최근에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외국어 학습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이에 대한 의견

1) 논의되는 모든 예는 이 교재들에 실린 실례이지만 저자나 교과서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2. 교재의 평가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요소에 대한 두 학자들의 견해 인용.
3.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입과 교수 목표, 담화의 부자연스러운 반복, 담화와 문화의 상치 및 번역 문제, 문법 교육과 관련된 문제, 용어, 어휘, 용법, 교재 구성, 문형 연습과 활용 과제, 시청각 자료, 복습 제시의 11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하여.²⁾
4. 과제 지향적 교수에 있어서의 "과제"의 제약.

2. 의사소통 교수

Hymes(1972) 등 사회언어학자가 Chomsky의 이론을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에만 치중하는 일방적인 이론이라고 평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language skills에는 언어적/문법적(linguistic/grammatical competence) 능력은 물론 반드시 의사소통(communicative competence)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언어학자·외국어 교육자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요즘에는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performance-based language teaching 같은 용어가 제2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하나의 유행어(buzz word)처럼 흔히 쓰이고 있다. 의사소통 교수법의 기저 원리는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주는 활동 중심, 과제 중심, 뜻과 진정 언어 중심이다(Richards and Rodgers, 1986). 필자도 이러한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재를 선택하거나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Hadley(2001 : 640)는 다음과 같은 표준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기본 원리를 토대로 해서 부록에 첨부한 교재 평가 지침을 만들어 보았다(부록 A 참조) :

- (a) 실제로 목표 언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맥락 중심의 연습과 활동(activity)이 충분한가?

2) 미국에서의 교재 개발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영어 사용이 불가피한데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 (b) 창의적인 활동을 격려하는가?
- (c) 분단이나 쌍을 통해서 상호 작용을 격려하는가?
- (d) 담화, 독해, 연습 문제 등에 제시되는 (목표)언어가 진정하고 자연스러 운가? 시각 기자재(visual aids)나 실물 교재(realias)가 제시되었는가?
- (e) 문법 설명이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 (f) 본문이나 읽을거리(readings)가 학습자의 요구나 취미에 알맞은가?

또한 Bragger(1985 : 61~62)가 제시한 요소 역시 중요하다 :

- (a) 어휘가 다양한가?
- (b) 이미 소개된 어휘를 재순환(recycle)시켜 주는가?
- (c) 교재에 제시된 의사소통 상황이 실제 접할 수 있는 표현과 가까운가?

앞서 언급된 기존 교재의 문제점은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논의될 것이다.

3. 기존 교재의 제 문제

3.1. 도입과 교수 목표

한국어와 영어는 언어 계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어를 소개하는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도입이나 개요(synopsis)가 필요하다. 이러한 도입이나 개요가 학습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 보고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Integrated Korean*에 제시된 도입이 그 좋은 예인데, 조금 더 간략했으면 하는 반응도 있었다. 필자가 제시한 한국어에 대한 정보도 또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부록 B 참조).

여러 교재들을 보면 거의 교수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사실 교수 목

표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 대학의 학기제(semester)는 대체로 14주 내지 15주이고 일주일에 4~5일, 각 50분 수업으로 진행되며, quarter제는 한 학기가 약 10주쯤 된다. 그러므로 공부를 제대로 하는 학생이 교과서를 한 학기에 몇 과 정도 끝낼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한국말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기대 결과(expected outcome)'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King and Yeon의 *Elementary Korean*은 교수 목표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여러 다른 정보도 자세히 제시된 교재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Main Objective ; Basic Methodology ; About the Dialogues ; Themes and Situations ; About Teaching the Korean Script ; About Contact Hours ; About Vocabulary.

3.2. 담화의 부자연스러운 반복

- (a) A : 미국 대사관知道吗?
 B : 네, 知道吗
 A : 미국 대사관이 어디에 知道吗?
- (b) A : 앤디 씨 여기 知道吗?
 B : 아니오, 没有
 A : 그럼, 앤디 씨가 어디에 知道吗?
 B : 식당에 知道吗

위와 같이 여러 번 반복('미국 대사관' '앤디 씨가 어디에...')하는 자연스럽게 지 못한 대화는 피해야 할 것이다.

3.3. 담화와 문화의 상치 및 번역 문제

한국어 담화형(discourse patterns)과 영어권(특히 미국) 한국어 학습자의 사고 방식(thought pattern)이 상치되는 점이 너무 많은데, 바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줄고, 2000a).

3.3.1. 학습자에게 문화적으로 상치되어 부자연스러운 담화

- (a) A : 커피 하시겠어요?
B : 커피는 마시고 싶지 않아요.
A : 왜요?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다는데 “왜요?”하고 반문한다는 것은 미국인에게 는 실례가 될 뿐 아니라 아주 어색하다.

- (b) A : 안녕하세요, 수지씨?
 뭐 하세요?
B : 어, 마이크씨, 아침 먹어요.
 앉으세요.

이 대화는 전화가 아니고 직접 서로가 만나면서 하는 대화이다. 그럼 지금 화자 B가 아침을 먹고 있는 A를 보면서 “뭐하세요?”라고 묻는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다.

- (c) A : 누구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B :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A : 언제 어머니한테 답장을 하시겠어요?

화자들이 가족이거나 친척이 아닌 맥락에서 “언제 어머니한테 답장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큰 실례이다.

- (d) A : ...다 결혼했어요?
B : 네, 다 결혼하고 저 혼자만 안 했어요.

A : ...씨는 언제 결혼하고 싶으세요?

“...씨는 언제 결혼하고 싶으세요?”와 같은 ‘대화’는 농담이 아닌 이상 미국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다.

(e) A : 미스 김 어디 갔다 왔어요?

B : 옷 가게예요 옷 좀 샀어요

A : 좀 보여 주세요

마찬가지로 “좀 보여 주세요”하는 것은 너무 단도직입적이다.

(f) A : 안녕하세요? 저는 앤디예요.

이름이 뭐예요?

B : 저는 안나예요.

서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름이 뭐예요?” 한다는 것은 미국인에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화이다. 외국인이 만든 교재에는 이런 대화를 볼 수 없다. 문화적으로 상치되는 어색한 대화를 피하면 얼마든지 더 실제에 가까운 담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Authenticity”에 대해서 Ochiai Ahn(1999:26)이 “When students learn a foreign language, they unconsciously tend to model it on what is ‘authentic’ in their native languages”라고 말했는데 정말 우리 한국어 교육자들이 유의해야 할 명언인 것 같다.

3.3.2.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뜻의 차이

(a) 선생님 : 오늘은 이만 하겠어요. 질문이 있어요?

학 생 : 오늘 숙제 있어요?

선생님 : 네, 오늘 숙제는... 내일까지 내세요.

여기서 한국인에게는 “오늘 숙제”는 “오늘 해야 할 내일을 위한 숙제”를 말하는데 미국인에게는 “내일 숙제”가 된다(Do we have any homework for tomorrow?). 그런데 이런 차이점에 대한 설명도 없고 영어 번역까지 “today’s homework”라고 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점은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다.

3.3.3. 번역의 문제점

한국어 대화에는 ‘그런데’ ‘참’ ‘저’ 같은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맥락에 따라 뜻을 정확히 파악해 주지 못하면 아주 어색한 영어가 되어 버려 미국인에게는 부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들린다.

(a) A : 이번 학기에 다섯 과목을 들어요.
그런데, 제니씨 어디 가세요?

영어로 이 맥락에서 “그런데”의 뜻을 제대로 반영시키려면 “so”가 되어야 하는데 “by the way”라는 하나의 뜻으로 번역을 하니 여간 어색하지가 않다. 이와 같이 “by the way”라는 뜻으로 어느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한다 :

(b) 그런데	by the way
밥과 반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There are boiled rice and side dishes. By the way, what is not here?
내 동생은 예쁩니다. 그런데 키가 좀 작습니다.	
비가 옵니다. 그런데 우산이 없습니다.	

이 예문 중에 위에 주어진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다.

3.4. 문법 교육과 관련된 문제

의사소통 중심 교수와 관련된 논란 중의 하나는 공식적 문법 교육의 유효성 문제이다. 자연스럽게 비교과서적인 언어형태를 제시하는 것과 공식적인 문법 교육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의사소통 중심 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문법과 문장 구조를 최소화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최소화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필자의 이론적 입장은, 사춘기 이후 청소년과 성인들은 대상 언어의 문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쪽의 제2언어 연구에 동조한다. 공식적인 문법 교육이 없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국어로부터의 부정적인 전환, 단순화, 잘못된 규칙 형성 등의 학습 문제를 반영하는 불완전한 중간 언어(interlanguage)를 형성하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Eleanor Jordan이 “역겨운 유창성(abominable fluency)”이라고 이름 붙인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즉, 대상 언어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형태적, 기본적인 기초를 다 가르쳐야 한다. Higgs and Clifford(1982), Ellis(1985)와 같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문법 수업을 들은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보다 훨씬 복잡한 구문을 만들 수 있으며 공식적인 문법 교육이 학습자로 하여금 더 높은 유창성을 획득하도록 한다고 한다. 한국어 교육에 경우에도 문법의 기초가 없거나 불충분한 학습자는 상급에 올라갈수록 쓰기나 독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물론 역겨운 유창성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3.4.1. 문법 제시에 대해서

요즘 미국 학생들의 문법 실력은 아주 약하다. 뿐만 아니라 문법을 싫어

하며 지루해한다. 그러므로 간략하고 교육적인 설명과 자연스럽게 생산적인 예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어 교재 중에 Jordan의 *Japanese : The Spoken Language*가 학습자들의 인기를 끌었는데, 설명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불평을 하면서 “머리가 아파서 읽지 못 하겠다”는 학생이 많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문법을 기술하거나 제시할 때에 원칙적으로 일관성과 정확성을 그 기반으로 해야 하겠지만, 언어 구조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학습자가 범할 가능성이 있는 실수나 오류를 미리 예측하는 “안목”도 배려해야 할 것이다(졸고, 2000a).

3.4.2. 단축형(contraction)의 문제

자연스러운 담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이게’ ‘뭐’ ‘...거예요’와 같은 단축형을 제시하는 교재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학습자의 질문 때문에 결국 기저형을 설명하게 된다. 교육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무엇이’ ‘무엇을’ ‘...것이에요’가 먼저 소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4.3. 과거형

과거형이 나중에 제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좀더 앞서서 소개하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난이도를 지적하는 저자들도 있겠지만 과거형을 제1과에 소개한다고 해도 학습자들이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과거형을 빨리 배움으로써 더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어느 교재에서는 “어제”라는 단어는 제시했는데 과거형이 없으니 쓸모 없는 단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3.4.4. 조사의 생략

조사 생략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기도 힘든 문제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담화의 자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아무 설명 없이 조사를 생략한 대화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조사가 쓰여야 하는 위치에 왜 안 써야 하는지, 왜 안 써도 좋은지, 어느 경우에 다시 써야 하는지와 같은 최소한의 설명이나 지침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5. 용어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즘 미국 학생들 중에서 영어 문법 용어를 제대로 아는 학생이 극히 드물다. 타동사(transitive verb), 자동사(intransitive verb), 목적어(object), 접속사(conjunction) 등 흔히 잘 쓰인다고 생각되는 문법 용어도 모르는 학생들이 허다하다. 한국어 교재들을 살펴보면 구개음화(palatalization), 비음화(nasalization), 파열(plosive), 마찰(frictive), 폐쇄(stop)와 같은 전문 용어가 튀나오는데, 가능한 한 전문 용어나 문법 용어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용어 없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용어를 앎고는 명확한 설명이나 기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어에 대한 쉬운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3.6. 어휘

많은 교재에서 이미 배운 어휘를 다음 과의 담화에서 다시 수록(재순환)하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이 금새 어휘를 잊어버리게 되고 학습상의 연계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과제별로 특징적인 담화를 구성하는 문제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재순환시키는 것이 비효과적이라면, 읽을거리에 충분히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학습자들의 일상 생활 활동에 필요한 어휘가 소개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 대학 생활과 대조적인 표현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재들을 보면 '인사' '소개' '학교' '공부' '식당' '음식' 같은 것에 관한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어휘들도 많이 제시되는데, ‘컴퓨터 게임’ ‘아파트와 기숙사 생활’ ‘아르바이트’ ‘학교 행사(club, meeting, sports, dating, …)’와 같은 활동에 관한 어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비록 간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돈을 내다, 돈을 벌다, 늦잠 자다, stay up late, write a paper, presentation, office hours, make an appointment, keep an appointment, cancel an appointment, deadline, student association” 같은 표현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일관성과 교육성의 측면인데, 예를 들면 어느 교재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이 모두 다른 과(제2과, 제5과, 제8과)에서 소개된다. ‘오전’ ‘오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운동장’이라는 단어를 제시할 때 영어의 뜻을 ‘field’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stadium’에 해당하는 말인지 아니면 한국말로 ‘stadium’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제는 ‘세수하다’라는 단어보다는 한국말로 ‘take a shower’ ‘take a bath’를 뭐라고 하는지를 가르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백봉자(1999)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볼 때 좀더 요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어휘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3.7. 용법

문법 기술도 어렵지만 용법은 화용론(pragmatics)이나 언어사용(language use)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더 힘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의 대조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어에서는 아래 예문에 주어진 것과 같이 ‘좀’ ‘저어’ ‘그럼’ ‘그런데’ ‘참’ ‘원’ ‘뭘요’와 같은 표현을 많이 쓰는데 뜻이 정확히 기술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a) 좀 많아요 스무 명이에요.

이런 맥락에서는 ‘좀’의 영어에 해당되는 정확한 뜻이 무엇이며 왜 쓰이

는가? 그럼, '좀 비싸요' 할 때의 '좀'하고 어떻게 다른가? 설명이 잘 안 되어 있다.

(b) 참, 지금 몇 시예요... 참, 인사하세요.

이런 경우에 '참'을 모두 'by the way'로 번역을 했는데 미국인에게는 아주 부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참'의 용법을 잘 모르게 된다.

(c) 저어,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영어로 뜻을 'well!'로 표시했는데 역시 미국인에게는 이해하기 힘들다.

(d) 고마워요. 번번이 신세만 지네요.

원,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e) 영회가 공부를 잘 해서 참 좋으시겠어요.

필요, 별로 잘 하지도 못해요.

3.7.1. 감사, 사과, 칭찬

교재들을 보면 그저 모두 '전형적인' 표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표현, 또는 연령(age)이나 성(gender)별로 차이가 나는 표현과 같은 것이 있다면 이를 제시해 주는 것이 재미있고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3.7.2. 화용론(pragmatics)에 관련된 오류

식사 먹었어요?

선생님은 참 똑똑하시군요.

선생님 참 잘 하셨어요.

사모님이 오셔서 행복하시지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다보면 위와 같은 재미있고 창의적인 오류가 많이 생기는데, 교재를 개발하기 전에 어떤 설명과 접근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과제 활동이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이런 용법에 대한 기술과 설명, 또 사회언어학적인 차이를 강조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왕혜숙(1999)이나 이제선(2000)의 오류 분석에 관한 논문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연구이라고 생각한다.

3.8. 교재 구성

필자는 Integrated Korean 정도의 교재 구성이면 좋은 모델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 교재 Beginning 2에 제시된 제8과를 한 예로 들겠다.

제8과 연구실에서(At a Professors Office)

OBJECTIVES :

TASK/FUNCTION

1. Visiting a professors office : how to start a conversation
2. Describing ones biographical information
3. Making an apology and giving reasons
4. Asking for an opinion

GRAMMAR

G8.1 Clausal connective ~(으)ㄴ데/는데 (background information)

G8.2 Sentence ending ~(으)ㄴ데요/는데요

G8.3 Expressing desire : V.S. ~고 싶다/싫어하다

G8.4 Asking someone's opinion : ~(으)니까요?

1) Shall I/we? 2) Do you think?

G8.5 Noun-modifying form : V.S. ~는

G8.6 Clausal connective ~어서/아서 (cause)

G8.7 Conjunction 그렇지만

CONVERSATION 1

(Mark introduces himself to Professor Park and makes arrangements to take the Korean placement test.)

마크 : 저어, 여기가 박 교수님 연구실이지요?

박 교수님 : 네, 그런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마크 : 저는 마크 스미스입니다.

이번 학기에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은데요.

박 교수님 : 아, 그래요? 앉으세요. 한국어를 얼마나 배웠어요?

마크 : 시드니 대학교에서 일 년 배웠습니다.

박 교수님 : 뭐 공부하세요?

마크 : 지금은 동양학을 공부하는데, 앞으로는 한국 문화를 전공하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 : 그래요? 그럼, 내일 아침에 한국어 시험을 보세요.

마크 : 몇 시에 올까요?

박 교수님 : 아홉 시에 여기로 오세요.

마크 :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CONVERSATION 2

(Mark is late for the Korean placement test.)

(똑똑)

박 교수님 : 들어오세요.

마크 :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박 교수님 : 교통이 아주 복잡하지요? 뭐 타고 왔어요?

마크 : 여기까지 직접 오는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박 교수님 : 다음부터는 지하철을 타세요. 지하철이 빠르고 편해요.

마크 : 여기 오는 지하철은 몇 호선이에요?

박 교수님 : 2호선이에요.

(두 시간 후)

마크 : 교수님, 다 했습니다.

박 교수님 : 시험이 어땠어요?

마크 :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서 좀 힘들었어요.

[품사별로의 어휘 제시]

NARRATION

저는 호주 사람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한 달 전에 서울에 왔습니다. 호주에서는 일 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호주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한국어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어 시험을 보러 박 교수님 연구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많이 막혀서 10분 늦었습니다. 서울은 교통이 무척 복잡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저는 다음 주에 학교 기숙사로 이사합니다.

특히 각과마다 “NARRATION”이라는 reading passage를 포함한 것은 아주 교육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narration을 이용해서 독해, 번역 연습뿐만 아니라 듣기와 대화(문답을 통해서) 연습도 할 수 있다. 단 하나 다른 의견을 덧붙인다면 이런 mini-story를 더 도전적으로 만들고 필요에 따라 새 어휘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주어진 passage가 그 구체적인 예이다.

보조 NARRATION-1

뭐? 수학이 좋다고?

수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지면서 생각하기도 싫은, 즉 수학과 그다지 친하지 않은 포브[=중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수학이

좋아서 모인 친구들이 있다. 바로 경성중학교의 수학동아리 ‘셈이 바른 아이들’. 어떻게 수학이 좋을 수 있지? 하는 질문에 김지훈(경성중 3)은 이렇게 말한다. “딴 친구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단지 수학을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지훈이가 조금은 신기해 보이기도 하는데…(POVteen, No 17, August, 2000, p.46).

[사진 첨부]

보조 NARRATION-2

빵굽는 선생님

해물 스파게티, 비프 스테이크, 크랩 슈제트… 음식들이 범상치 않다. 이것들이 바로 일류 호텔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급 요리들인데, 여기서는 학생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다.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총 주방장 양한재 선생님은 학교 밖으로 명성여중의 호텔조리연구반을 떠들썩하게 일린 장본인이다. 웨라톤위커힐의 조리장을 초빙해서 아이들에게 호텔요리를 접하게 하고 있다. 간도 크지, 선생님의 유일한 무기인 제과제빵사 자격증 하나만 믿고 이렇게 큰 일(?)을 벌이고 있다니. (ibid, p.48)

3.9. 문형 연습과 활용 과제

위 3.8에 소개한 lesson과 같은 내용에 적절한 연습과 활용 과제로는 아래에 주어진 예와 같은 언어 활동이 필요하다(Ree, 2000).

3.9.1. 요소별 분리 테스트/접근(Discrete-point approach)

K-1 For each of the following sentences, circle the correct form :

- (a) 버스가 안 (왔어서) (와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 (b) 한국어를 배우고 (싶는데)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 (c) 시드니 (대학에) (대학에서) 일 년 한국어를 배웠어요
- (d)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서 학교에 (늦어요) (늦었어요).

- (d-a) 파티에 (늦어요?) (늦었어요?) [Are we late for the party?]
- (e) 샌디는 서울에 가고 (싶어요) (싶어해요).
- (f) 이미지씨예요? (아니는데요) (아닌데요).
- (g) [after 2 hours] 교수님 시험 다 (해요) (했어요).
- (h) 두 시간 (후에) (다음에) 오세요.
- (i) Sp1 :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Sp2 : (그런데) (그렇지만) 왜 택시를 타요?

K-2 Choose the one best answer (and translate the sentence).

- 어제 샌디한테 전화 ___ 집에 없었어요.
a. 했는데 b. 하는데 c. 한단는데 d. 했었다는데

K-3 Circle the correct form and state your reason for the choice.
[Hint : Both forms are grammatical, but the correct choice has to do with meaning.]

어제 샌디한테 전화 (했는데) (했지만) 다행히 집에 있었어요.

3.9.2. 종합적 기술/과제 지향적 기술(Integrative skills/task-oriented skills)

K-4. Oral/written production

- (a)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expected response :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가는데 누가 나를 쳐다봤어요/누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 (b) 어제 친구 집에 갔어요?
[갔는데 집에 없었어요...]
- (c) 지하철이 더 빨라요. 안 타요. (How come?)
- (d)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예요. 김치를 안 먹어요. (I dont know why, but...).
- (e) 동양학을 전공해요. 한국 문화는 공부 안 해요. (I wonder why)

K-5. Combine the following sentences into one complex sentence showing a relative clause :

다섯 시에 버스가 와요. 그 버스는 우리 대학교 앞에서 안 서요.

K-6. Introduce yourself (who you are, what you are doing in Korea, etc.), utilizing relative-clause constructions.

K-7. Group translation competition

(a) 보석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알라모아나 퍼시픽 주얼러를 찾습니다.

알라모아나 퍼시픽 주얼러=Ala Moana Pacific Jeweler

(b) 마크 카와타 법률 사무소

믿고 찾는 마크 카와타

그는 강력하고 정직합니다.

마크 카와타=Mark Kawata

(c) 신라원

최고의 맛과 품격을 고집하는 식당!

그러나 가격은 너무나무 싼 우리 모두의 식당!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K-8. Combine the following sentences into one coherent, connected discourse [recall and make use of appropriate connectives you have learned in this lesson] :

지난 토요일에는 좀 시간이 있었어요 친구하고 영화 구경 가기로 했어요. 친구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못 갔어요. (or 할 수 없이 혼자서 영화를 봤어요).

K-9. Listening task [with instructor's editing and aid]

주인 : 이쁘지? 싸게 나왔는데 몇 장 가져가 봐.

영은 : 얼마데요?

주인 : 소매로는 한 장에 만 오천 원 받는데 만 원에 가져가. 몇 장 줄까?

영은 : 엄마한테 전화해 보구요.

주인 : 엄마 취향 내가 잘 알아. 가져가. 오늘 중으로 다 팔릴 거야. 없어 못 팔어.

영은 : 정말요? 정말 없어서 못 팔아요?

주인 : 오늘 새벽만 열 두 장 나갔어. 지금 안 사면 없어.

영은 : 진짜요? 지금 안 사면 정말 없을까요?

K-10. Performance task

Your name is Sue Jones/Mike Jones. You have come to Korea to study Korean and Korean culture. Since it is expensive to call your parent(s) in America, you have decided to write. Since your mother is Korean, you feel it is only right for you to try writing letters in Korean. Also, who knows? You might impress her enough to get more spending money than you have bargained for. This is roughly what you wish to report in your first letter. Good luck!

You want to tell your mother something about your trip to Korea, your first impression of Seoul, food, accommodations, etc. You tried to call Professor Song at ___University, but she/he was not in, so you went to see her/him the following day. You could not see her/him right away because she/he was teaching a class. You went to the cafeteria and had a cup of coffee. You met some students who are studying English. You were delighted to meet them. They wanted to keep chatting with you in English, but you had to get to the professor office. She/he was in. You introduced yourself and asked her/him questions about what you should do. You were told to show up for a test at a certain time. Unfortunately, you got up late, and you had to take a taxi. You were about ten minutes late. The professor was a nice person, and she/he was waiting for you. She/he spoke Korean slowly, and you were happy to understand everything.

3.10. 시청각 자료

백봉자(1999)도 강조했다지만 대체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에는 'eye-catching/appealing'하는 시각 기자재(visual aids)나 실물(realias)들이 없거나 부족하다. 예를 들면 대학교 캠퍼스에 대한 담화가 나오는 과에 한국 대학교, 도서관, 학생회관 등의 사진도 첨부하고 또 학생들이 잘 가는 cafe나 '오락실' 같은 것도 보여 주면 학습자들의 흥미를 더 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예로서 어느 스페인어 교재에서 뽑은 사진을 이 논문 맨 뒤에 첨부했다.

3.11. 복습 제시

대부분의 교재들이 중간 중간에 review lessons 없이 자꾸 앞으로만 나가는 경향이 있다. King and Yeon의 *Elementary Korean* 같이 반드시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는 review lesson을 네 과나 다섯 과 마다 제시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

4. 맺는 말

학습자들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한다는 것은 보통 작업이 아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각 개인의 학습 스타일(learning style)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효과적인 교재가 개발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우리 한국어 교육자들이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성공적인 언어 습득 및 교수는 교재에 달린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교사에 달렸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교재를 써도 쓸 줄을 모르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고,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교재라도 경험이 있고 능력 있는 교사라면 효과적인

교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적이고 의사소통 접근을 잘 반영시켜 주는 교재가 있다면 언어 습득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다.

《 참고문헌 》

- 라혜민·우인혜(1999), 「한국어 교재의 효율적 개발 방향」, 『한국어 교육』 제 10권 2호, 국제 한국어 교육 학회.
- 백봉자(1999), 「서양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제10권 2호, 국제 한국어 교육 학회.
- POVteen, 『똑똑한 중학생 시사문화 매거진』 2000년 8월호, 월간 포브틴.
- 황인교(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육』 제9권 2호, 국제 한국어 교육 학회.
- Ahn, Ochiai Emi(1999), “Teaching Korean Relative Clause : A Show & Tell Method”, In Sahie Kang, ed., *Korean Language in America* 3,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 Bragger, Jeannette D.(1985), “The Development of Oral Proficiency”, In A. Omaggio, ed., *Proficiency, Curriculum, Articulation : The Ties That Bind*, Middlebury, VT : Northeast Conference.
- Ellis, Rod(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Hadley, Alice Omaggio(2001),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Boston : Heinle & Heinle.
- Higgs, Theodore V. and Ray Clifford, “The Push Toward Communication”, In T.V. Higgs, ed., *Curriculum, Competence and the Foreign Language Teacher*, The ACTFL Foreign Language Education Series, v. 13. Lincolnwood, IL : National Textbook Company.
- Integrated Korean*(preliminary version).
- King, Ross, and Jae-Hoon Yeon(2000), *Elementary Korean*, Rutland, VT : Tuttle Publishing.
- Lee, Jeyseon(2000), “Error Analysis and Corrective Measures for Intermediate Korean”, In Sahie Kang, ed., *Korean Language in America* 4,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 Ree, Joe Jungno(2000a), “Problems of Cultural Clash in Textbooks”, In Sahie Kang, ed., *Korean Language in America* 4,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pp.141~162.

- _____ (2000b), "National Standards and Reinforcement of Task-Based Teaching", In Sung-Ock S. Sohn, ed., *Korean Language in America* 5.
- Wang, Hye-Sook(1999), "Pragmatic Errors and Teaching for pragmatic Competence", In Sahie Kang, ed., *Korean Language in America* 3,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부록

A. SUGGESTED CRITERIA FOR TEXTBOOK EVALUATION

VOCABULARY	STRONG<-->WEAK
1. Current	5 4 3 2 1 0
2. Usage (syntactic, semantic, pragmatic)	5 4 3 2 1 0
3. Functional (utility, productivity)	5 4 3 2 1 0
4. Recycled throughout text	5 4 3 2 1 0
GRAMMAR	PRESENTATION
1. Clear and accurate	5 4 3 2 1 0
2. Integrated with themes of the chapter in which grammar points introduced	5 4 3 2 1 0
3. Organization (systematic, structural relationship captured)	5 4 3 2 1 0
4. Examples illustrating grammar points :	
(a) authentic (natural)	5 4 3 2 1 0
(b) accuracy of rendering meaning into English	5 4 3 2 1 0
WHOLE LANGUAGE	
1. Dialogues :	
(a) task-oriented	5 4 3 2 1 0
(b) natural and cohesive	5 4 3 2 1 0
(c) length (manageability, acceptability)	5 4 3 2 1 0
(d) sensitivity (gender, cultural compatibility)	5 4 3 2 1 0
(e) representative of Korean discourse	5 4 3 2 1 0

(f) representative of standard dialect (variety)	5	4	3	2	1	0
2. Reading material :						
(a) integrated with the theme in each chapter	5	4	3	2	1	0
(b) move from simple to complex (recycling of vocab)	5	4	3	2	1	0
(c) how challenging (comprehensible input, i+1)	5	4	3	2	1	0
(d) organization and cohesion	5	4	3	2	1	0
3. Contextualized approach to writing	5	4	3	2	1	0
4. Integration of culture and/or cultural information	5	4	3	2	1	0

EXERCISES AND ACTIVITIES

1. Consistent with each chapter	5	4	3	2	1	0
2. Organized to move from structured pattern practice to open-ended activities	5	4	3	2	1	0
3. Students asked to do task-based activities	5	4	3	2	1	0
4. Contexts for activities varied	5	4	3	2	1	0
5. Listening comprehension with questions	5	4	3	2	1	0
6. Reading comprehension with questions	5	4	3	2	1	0

ORGANIZATION

1. Components of grammar, vocabulary and culture well integrated	5	4	3	2	1	0
2. The text organized around language functions	5	4	3	2	1	0
3. The text meets stated objectives	5	4	3	2	1	0
4. Pedagogical (presentation, clarity, organization)	5	4	3	2	1	0
5. Themes are varied and relevant to students' interests and needs	5	4	3	2	1	0

PRESENTATION OF KOREAN SOUNDS AND *HANGUL*

1. Accuracy of information	5	4	3	2	1	0
2. Order of presentation (logical, pedagogical)	5	4	3	2	1	0
3. Organization of exercises (pedagogically sound)	5	4	3	2	1	0
4. Treatment of problems of orthographic syllable and pronunciation ("liaison" problem)	5	4	3	2	1	0

B.

A Brief Introduction to Korean

0. English and Korean are both genetically and structurally quite apart from each other. It is hoped that this synopsis will give the reader with no knowledge of Korean some idea of what Korean is like, and how it differs from English. By no means will a complete grammar of Korean be attempted, but only one of the features that are in marked contrast with the corresponding features in English will be presented. Specifically, the following will be discussed : word order, preposition vs. postposition, subject vs. topic, deletion of understood subject, position vs. use of particles to show grammatical roles, and speech levels.

1. SVO vs. SOV

If we classify languages according to the relative order in which subject, object, and verb are placed in a declarative (non-question) sentence, then we have six (logically) possible orders : S(ubject) V(erb) O(bject), SOV, VSO, VOS, OSV, and OVS.

English follows the first pattern while Korean favors the order in which the verb is placed at the end of a sentence. Consequently, Korean is commonly referred to as an SOV or a verb-final language. Let us look at some Korean examples.

1. Suzy-nun hankukmal-ull hayyo
 Topic Korean Obj. speak-polite
 [Speaking of] Suzy[, she] speaks Korean.

Notice that unlike English the verb follows the object noun. This pattern is not limited to just the transitive verb but persists throughout the language, as shown in

2. John-un kongwen-eyse nol-ass-eyo
 park at/in play past-polite
 John played in the park.

3. Mary-nun ejey tolawa-ss-seyo
 yester. return
 Mary returned yesterday.

4. Mary-nun hakkyo-eyse John-ul mamma-ss-seyo
 school at/in meet
 Mary met John at the school

2. Preposition vs. Postposition

Words such as in, at, with are called prepositions because they are placed before the accompanying nouns. In Korean, however, the words that are functionally equivalent to English prepositions follow the accompanying nouns and hence are called postpositions. Sentences like the following then are unacceptable in Korean.

5. *Mary-nun eyse kongwen nolla-ss-eyo

All postpositions are suffixal, i.e., they are attached to nouns, and they are bound forms (cannot stand alone).

3. Position vs. Use of Particles

In English the grammatical role (function) a noun plays in a sentence is shown by the position that it occupies. In other words, in Alice likes Fred, for example, the only device that separates the actor from the victim is the word order. In Korean, however, grammatical roles are indicated by postpositions. So in the sentence

- | | | | |
|----|-----------|----------|------------|
| 6. | Alice-nun | Fred-lul | joha-hayyo |
| | Topic | Obj. | like |

the actor (subject noun) is marked by the postposition nun and the object noun by lul. Here are some more examples :

- | | | | |
|----|----------|----------|----------------|
| 7. | Fred-nun | Seoul-ey | ka-ss-eyo |
| | | to | go past-polite |

Fred went to Seoul.

- | | | | | |
|----|-----------|--------------|-----------|-----------|
| 8. | Alice-nun | hankwuk-eyse | yenge-lul | kalucheyo |
| | | Korea in | Eng. | teach |

Alice is teaching English in Korea.

4. Subject vs. Topic

Consider the following sentence :

9. Carol is my friend.

It may not be immediately clear, but this sentence has at least two meanings. If the sentence is said stressing neither Carol nor friend, the speaker simply identifies Carol as her friend. What constitutes new information in this case is the predicate, e.g. Carol being the speakers friend. If the sentence is uttered stressing Carol, however, the meaning is something like It is Carol, not, say,

Linda, who is my friend. Notice that in this sense someone being the speakers friend is already known. What provides new information is the subject Carol. The sentence with this interpretation definitely presupposes a question like Who is your friend? or Who did you say your friend is? Consider also this example :

10. (a) This[TOPIC] is a problem.
 (b) This[SUBJECT] is the problem.

The meaning of (10a) is simple identification whereas (10b) is clearly presuppositional in that the problem was talked about before while the subject this provides new information.

Unlike English, Korean expresses these two different meanings by way of particles. If the sentence means no more than identity, then the particle *nun*³ is used. If it presupposes a question like Who is your friend? or if it corrects the hearers misunderstanding (i.e., No, not Teri, Carol is my friend), the particle is *ka*/⁴. *Ka* and *nun*, respectively, are known as the Topic and Subject markers in Korean grammar. Observe the following :

11. (a) Carol-un nay chinkwu-eyyo
 my friend
 (b) Carol-i nay chinkwu-eyyo
 (It is) Carol (who) is my friend.

The Topic particle is also used in contrasting two or more items. (I) saw Mary, but (I) didnt see Fred is such a sentence that involves the kind of contrast under discussion. This sentence in Korean will then be (I) Mary-nun saw-but Fred-nun didnt see, as in

12. Mary-nun po-ass-jiman Fred-nun mos po-ass-eyo

see

not

As a perceptive reader may have observed, the Topic nun replaces the Object particle o. in this case.

There is much more to the difference between ka and nun, and learning to use them correctly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spects of Korean grammar. They are definitely learnable.

5. Deletion of Understood Subject

One outstanding characteristic of English is that subjectless sentences are very uncommon. Witness : Its raining. Its two oclock, and so on. The it is semantically vacuous, but every sentence must have a subject although such truncated forms as See you, Looks like he is in pain, etc. do occur informally. In contrast, Korean does not express the subject noun which is contextually or clear or understood by previous mention, particularly in a direct discourse. Are you American? in the typical Korean discourse style is Are American? as shown in

13. Mikwuk salam-i-eyyo?

American person is

It sounds very stilted or even unnatural to retain the subject whose referent is clear to the interlocutor.

6. Speech Levels

Another feature which is alien to the speakers of English is the concept of levels of speech, which are not simply different styles of speech. In American

hopefully, appreciate another culture without any value judgment will be the first step to acquiring such culture-bound concepts as levels of speech. Moreover, grammar points can best be learned and understood in cultural contexts.

ENDNOTES

1. A number of particles have two variants, one occurring after a word that ends in a vowel, and the other that is used after the word ends in a consonant. Here *lul* after a vowel, and *ul* after a consonant.
2. The asterisk (*) indicates that the form so marked is either ungrammatical or odd.
3. *Nun* after a vowel, and *un* after a consonant.
4. *Ka* after a vowel, and *i* after a consonant.
 - 1) not giving overall introduction
 - 2) unnaturally repeated phrase
 - 3) culturally inappropriate discourses
 - 4) incorrect translation
 - 5) flaws in explaining grammar
 - 6) providing vocabulary, drill and exercise context freely

Abstract

The Problems and Alternative Plan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Teaching Materials in U.S.A.

Ree, Jung-no

In this paper, I examine problems which Korean teaching materials currently used in U.S.A. have and attempt to find the way to solve them. Basically, the teaching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At this perspective, it is argued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teaching materials. They are as follows. - There is much to be desired in relation to each introductions among contents and main objective, the unnatural repeated phrasing, discourse not fitted for learners in culture and translation into English in teaching materials. In addition, there are many problems about explaining grammar, terms and the parts connected with pragmatics and language use, using vocabularies, constructing contents involving review lessons, and developing audio-visual aids.

I present some ways of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based on above-mentioned matters. Above all, the teaching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which include discourses fitted for student in culture, contents corresponded with real life, everyday languages, and various and plentiful expressions. To explain grammar and terms flexibly also have to be considered.